

<화정선행록>에 나타난 多重結緣의 複合 構造*

조 광 국**

차 례

- | | |
|---------------------|-----------------------|
| I. 문제제기 | III. 多重結緣의 複合 構造의 지향점 |
| II. 多重結緣의 複合 構造의 양상 | IV. 결론 |

I. 문제제기

소설의 서사구조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시각이나 방향으로 심화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필자는 몇몇 고전소설에서 서사구조의 하나로 多重結緣構造가 비중있게 자리잡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창란호연록>은 겹사돈의 이중결연구조, <청백운>은 三角婚의 삼중결연구조, <임화정연>은 1부3처의 사중결연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적시하고, 이러한 다중결연구조는 17세기 이후 조선후기에 부상한, 유력 가문들 사이의 집단적 연대라는 사회구조를 작품세계로 수용하되, 家門連帶와 다양한 갈등들을 융화하여 형태적·내용적으로 대조적 균형성을 획득한 소설형식이라

* 본 연구는 구원장학재단 지원금으로 수행된 것임.

** 아주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는 결론을 내렸다.¹⁾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개별 작품별로 다기화되었던 2중결연, 3중결연, 4중결연을 한 작품 안에서 한꺼번에 담아내는, 구조적 차원에서 시도는 과연 없었을까. 만약 그런 소설이 존재한다면, 그 소설은 우리 소설사에서, 나아가 세계 소설사에서 서사구조 차원의 큰 획을 긋는 작품이 될 것이다. 실로 <화정선행록>은 이에 부합하는 우리의 고전소설이다. 이 작품은 2중, 3중, 4중 결연을 포괄하는 多重結緣의 複合 構造를 지니고 있으며, 더욱이 그런 다중결연의 복합 구조가 여러 세대들을 펼쳐 놓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同一 世代에 중첩적으로 이루어지며, 그러면서도 산만하지 않고 균형적 형식미를 확보하고 있어서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간 김기동이 이 소설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이래,²⁾ 박명희가 여성중심적 시각이 드러난 작품으로 보았고,³⁾ 한길연은 능동적 보조인물이 잘 구현된 작품으로 보았다.⁴⁾ 장효현에 이르러 본격적인 작품론이 펼쳐졌는데, 그는 서지 및 서사 전개, 인물 형상, 작가의식의 측면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논의했다.⁵⁾ 이들 선행논문은 저마다 작품의 성향을 일정하게 포착해냈지만, 논의의 방향이 아직 결연구조를 해명하는 쪽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김미선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서사적 측면에서의 작품론이 펼쳐졌다. ‘임창연과 소흥문이 세 명의 부인과 결연을 맺는 중심 결연담’과 ‘김성광과 채원중이 그들이 선택한 여성과 결연을 맺는 파생적 결연담’으로 되

1) 조광국, 「다중결연구조의 양상과 의미-〈창란호연록〉 <정백운〉 <임화정연〉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육학회, 2006, 524쪽.

2)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연구사, 1983, 821~827쪽.

3) 박명희, 「고소설의 여성중심적 시각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0.

4) 한길연, 「대하소설의 능동적 보조인물 연구-〈임화정연〉 <화정선행록〉 <현씨양옹쌍린기〉 연작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1997, 19~28쪽, 40~46쪽.

5) 장효현, 「〈화정선행록〉 연구」, 『정신문화연구』 26권 3호(통권 92호), 2003, 93~120쪽.

어 있음을 밝혔고, 더하여 ‘중심 결연담’은 ‘가문의 연대와 격상’을 담아 낸 것이라 해석했다.⁶⁾ ‘인물형상’의 논의를 부가함으로써 이 작품의 ‘결연양상’이 보다 섬세하게 밝혀졌지만, 그 논의가 포괄적이지 않으며, 다른 작품과 비교할 때 그 결연의 위상이 어떤지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와 결부하여 산림가문의 성향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結緣構造의 차원에서 미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자는 먼저 다중결연의 복합 구조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작품에 나타난 2중결연, 3중결연, 4중결연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이에 병행하여 타 작품들에 나타나는 다중결연과의 비교를 통해 그 위상을 가늠하고자 한다. 이어 다중결연의 복합 구조에 수반되는 형태미와 내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이런 ‘다중결연의 복합’ 구조는 ‘다중결연’의 구조를 계승하면서도,⁷⁾ 그보다 한층 심화된 우리 고유의 결연구조로 창출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다중결연의 복합 구조의 지향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 구조는 ‘산림가문-권문세가-황실’의 가문연대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가문연대가 反動人物에 의해 와해될 위기에 처하지만 결국 극복되는 것으로 보인다.⁸⁾ 그리고 이 가문연대의 중심이 산림가문이며, 그 산림가문이 구체적으로 閼闕山林의 성향을 띠고 있음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여기

6) 김미선, 「<화정선행록> 연구-결연양상과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2006.

7) 다중결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①남녀결연에 관여하는 가문의 數를 고려해야 하고, ②그 결연이 同世代로 한정되어야 하며, ③결연이 위기와 고난을 거친 후 家門間 結束力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야 한다. 이에 2가문의 동세대가 겹사돈을 이루는 경우를 2중결연, 3가문의 동세대 남녀가 三角婚을 이루는 경우를 3중결연, 4가문의 동세대 남녀가 1부3처를 이루는 경우를 4중결연이라 할 수 있다 (조광국, 504~505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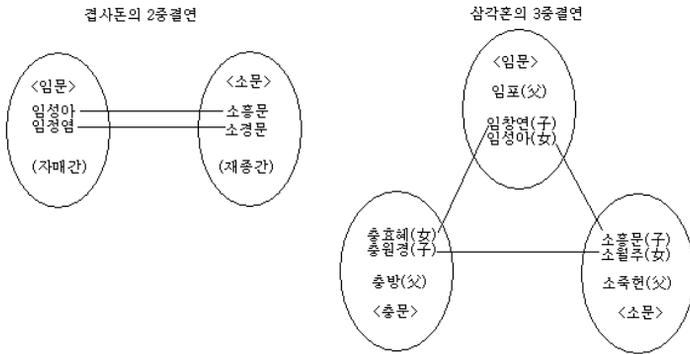
8) ‘反動人物’의 개념은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4, 15~18쪽 참조.

에서는 산림가문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자들이 취했던, ‘처사=몰락양반’으로 보는 巨大談論에서 탈피하여, 산림가문 중에 별열의 성향을 띠는 闕闕山林이 있을 것임을 상징할 때, 가문연대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해지리라 본다.

II. 多重結緣의 複合 構造의 양상

임·충·소 3門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황실, 허문, 이문①, 이문②, 단문, 주문, 한문, 진문, 김문, 여문, 채문 등 여러 가문이 복잡한 通婚關係를 형성한다. 이들 통혼관계는 2중결연, 3중결연, 4중결연의 복합화로 응집된다.

1. 2중결연, 3중결연, 4중결연



임성아·임정염 친자매가 각각 소홍문·소경문 재중형제와 혼인함으로써 임·소 2門이 광의의 겹사돈을 맺는다. 그리고 소죽현의 양녀가 된 허월아가 임창연과 혼인하는데, 소죽현이 임포에게 “겹겹 친용”이 되었

한편 임창연과 소흥문을 중심으로 각각 1부3처의 4중결연이 나타난다. 임창연은 화순공주·충효혜·허월아와 결연하고, 소죽헌은 임성아·이명아·주요주가 결연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1부3처의 4중결연을 통해 임·충·소 3門 중심의 결연이 황실, 허문, 이문, 주문으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임창연과 충효혜·화순공주·허월아가 맺는 4중결연은 전체 15권 중에서 권1~권6에 걸쳐 있을 만큼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한다. 그 과정은, “㉑가부장에 의한 임창연·충효혜의 정혼→㉒신종황제의 사혼→㉓충효혜의 위기, 구조→㉔교동국의 반란, 소죽헌과 임창연의 출정, 허월아 구출→㉕임창연·화순공주의 성혼→㉖임창연·소흥문의 출전, 충효혜의 임창연 구출·승전→㉗임창연·화순공주의 부부화목, 화순공주의 임신→㉘충효혜의 허월아 구출→㉙신종황제의 양녀가 된 충효혜의 임창연과의 성혼→㉚충효혜·화순공주의 화목→㉛사면복직된 허정유와 허월아의 해후→㉜충효혜·화순공주의 개입, 임창연·허월아의 혼인→㉝3부인의 화목.” 순으로 되어 있다. 군신갈등, 부부갈등, 부자갈등, 처처갈등 등 여러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그런 갈등은 벌어지지 않고,¹⁰⁾ 그 대신 황제의 사혼과, 김성광·김부인 남매, 채원중의 겁박에 의한 혼사장애가 개입되는데, 이런 혼사장애들은 세 여성이 친분을 맺는 계기, 종국에는 화목한 1부3처를 이루는 계기가 된다.

소흥문과 임성아·이명아·주요주가 맺는 4중결연은 다음과 같다. “㉞소흥문·임성아의 성혼→㉟형부시랑 이현의 청혼, 소흥문·이명아의 정혼→㊱이현의 별세, 계모 곽부인에 의한 이명아의 혼사장애→㊲주복·주요주 부녀의 도움, 이명아·주요주의 친분 형성→㊳주복의 이현 계(이명아의 오라비)를 통한 청혼, 주요주·소흥문의 정혼→㊴소흥문과 이명아·주요주의 같은 날 혼인→㊵3부인의 화목” 순이다. 소흥문·임

10) 처처(첩)갈등, 부부갈등, 계후갈등이 나타나지 않음이 지적된 바 있다(김미선, 20쪽).

성아의 결연은 양가의 축복 속에서 이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소흥문·이명아 결연의 경우, 장인인 이현의 적극적인 청혼과 소흥문의 허혼으로 순탄하게 정혼이 이루어지는 단계, 이현의 별세 이후 계실 괘부인에 의해 이명아에게 가해지는 혼사장애의 단계를 거친다. 소흥문·주요주의 결연을 보면, 장인인 주복은 딸이 부실이 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소문에 청혼하고, 소문에서도 주복과 친분이 있던 터여서 흔쾌히 허혼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과정에서 이명아에게 가해지는 혼사장애는 이명아와 주요주가 친분을 맺는 계기가 되고, 이것이 새로이 소흥문·주요주가 결연하는 계기가 된다.

이상, 두 가지로 형상화되어 있는 1부3처의 4중결연은 가부장, 결연 당사자들의 친분과 화목을 수반한다. 이는 <임화정연>에서 임규와 화빙아·정연양·연영아가 맺는 1부3처의 4중결연과 흡사하다. 다만 <임화정연>은 ‘主動的’ 4중결연과 ‘反動的’ 4중결연의 대립 양상을 보이는 반면,¹¹⁾ <화정선행록>은 주동적 4중결연의 중복 양상을 보인다. 요컨대 전자에서는 주동적 4중결연과 반동적 4중결연의 대립을 통해 주동적 4중결연이 강조되는 한편, 후자에서는 주동적 4중결연의 중복을 통해 그 결연이 강조된다.

2. 多重結緣의 複合化의 지연

이런 2중, 3중, 4중결연은 동일 세대에 걸쳐서 중첩적이고 복합적으로 얽히는 多重結緣의 複合 構造를 이룬다. 임·충·소 3門을 중심으로 이 중결연과 삼중결연이 중첩적으로 설정되고, 그 위에 여타의 가문과의 통혼으로 확대되는 두 가지의 1부3처의 4중결연이 설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多重結緣의 複合 構造는 反動人物에 의해 지연되는 상황을 포괄한다.

11) 조광국, 516~521쪽 참조

- ①김성광이 충효혜 겁탈을 시도. 충효혜가 투신자살을 시도.(→용왕이 구조, 이허진인이 가르침).
- ②채원중이 허월아 겁탈을 시도. 허월아가 투신자살을 시도.(→임창연의 구조, 황릉묘에서 거주).
- ③김성광·채원중이 의기투합. 황능묘에 머무는 허월아 겁탈을 시도.(→충효혜 도움, 위기 모면).
- ④곽부인이 장설영·장섭父子에게 이명아 매매. 시비 계섭이 이명아 행세, 이명아는 이운경 행세.
- ⑤양귀비·호부인·김성광·채원중·능운자의 결탁, 화순궁 섬멸 공모.
- ⑥악류들이 충효혜, 허월아 危害 공모. 假이명아(眞계섭)의 밀고로 허월아가 위기 모면.
- ⑦객점에서 벽랑의 음육과 假이운경(眞이명아)의 피신. 이명아의 逢賊. 주門으로 피신.
- ⑧이지강이 주요주에게 혼인 강요.(→주요주·假이운경의 혼약·피신→이명아·주요주 同生同死 결약).
- ⑨이명아·주요주 일행이 능운자의 석함에 간힘.(→충효혜의 부적으로 포증·소홍문에 의해 구출).
- ⑩김성광, 假여원홍(眞채원중)의 급제. 양귀비·능운자의 태후·태자를 참소. 임창연·소홍문·화순공주·충효혜·포증 무고. 奸黨의 득세.
- ⑪충효혜의 계교대로 매홍·장섭의 능운자 포박. 惡類의 죄상 폭로·처벌.(→김성광·채원중의 悔過).
- ⑫황실, 임문, 충문, 소문의 안정과 변창.

대표적인 반동인물은 김성광, 채원중, 곽부인, 이지강이다. 김성광은 성품이 좋지 않아서 早死한 부친의 친구였던 충방으로부터 性理之道를 갖추라는 경계의 말을 들곤 했다. 그는 누이 김부인을 만난다는 핑계로 충문을 드나들며 충효혜를 취하고자 누이와 공모하여 방화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충효혜가 연못물에 몸을 던지는 사태를 야기하고 만다. 채원중은 부친이 早死하여 조부의 슬하에서 자란 인물로서, 흠모하던 이종

사촌인 허월아를 차지하려다가 허월아를 강물에 투신하게 한다. 이를 꾸짖는 祖父를 발로 짓누르고 재물을 탈취해 달아남으로써 家國之亂을 일으킨 죄인으로 지목된다. 김성광과 채원중은 후에 한 패가 되어 악행을 일삼던 중, 황릉묘에 피신한 허월아를 취하려다가, 충효혜의 지시를 받은 시비 매홍·매섭에게 사로잡히고 만다.

곽부인은 형부시랑 이현의 계실로서 隱惡揚善하는 인물이다. 전실의 딸인 이명아가 소흥문과 정혼한 것을 질투하고, 친딸 이혜아를 소흥문과 혼인시키기 위해, 취월을 사주하여 소흥문을 유혹하게 한다. 남편이 병사한 후에는 이명아를 구타하는가 하면, 물 길기나 화분 옮기기 등의 천역을 시키다가 거금을 받고 大賈 장설영에게 팔아넘긴다. 이로써 이명아·소흥문의 결연이 지체된다. 그리고 이지강은 부모가 구물한 사대부 집안의 방중한 인물로, 절도사인 외삼촌 위공의 위세를 빌어 주문에 청혼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주천·주희 형제가 여동생 주요주를 假이운경(眞이명아)과 정혼시키자, 이지강은 무리배를 동원하여 횡방하고, 급기야 서동 운재를 假이운경으로 오인하여 살해하기도 한다.

反動人物들의 악행은 자신들의 애욕과 질투심에서 일어나지만, 여성 주역군인 충효혜·허월아 및 이명아·주요주에게 고난을 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반동인물이 이들 여성에게 가하는 고난은 일종의 혼사장에

12) **충효혜의 혼사장에 극복 과정:** ㉠충효혜·임창연의 約婚行聘, 황제의 임창연·화순공주 賜婚. ㉡충효혜의 수절, 김성광의 충효혜 탈취 시도 및 방화. ㉢충효혜와 시비 매홍·매섭의 동반 투신. ㉣용왕에 의한 구조, 이허진인에게서의 受學. ㉤요도 진탁에 의해 위기에 처한 임창연 구출, 사천 반란의 진압에 기여. ㉥황제의 화정공주 직접 하사, 임창연과의 성혼. ㉦김성광·채원중·양귀비·능운자의 공모. ㉧약류 징치.
허월아의 혼사장에 극복과정: ㉨부친의 유배, 채원중에 의한 겁박의 위기, 유모 황과와 동반 투신. ㉩소죽현·임창연에게 구출되어 소죽현의 양녀가 되고 황릉묘로 피신. ㉪김성광·채원중에 의한 위기, 월청도사의 구조, 화순궁을 거쳐 소문에 도달. ㉫허정유의 사면, 화정·화순공주의 개입으로 허정유의 여부인 용서, 임창연·허월아의 성혼. ㉬채원중 김성광의 상경, 채원중에 의한 허월아의

에게 가해진 고난은 임·충·소 3門이 맺는 삼각혼의 3중결연에서 한 축을 외해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반동인물들이 중국에는 징치되는 바, 이는 주동인물들과는 상반되는 쪽에서 다중결연의 복합 구조를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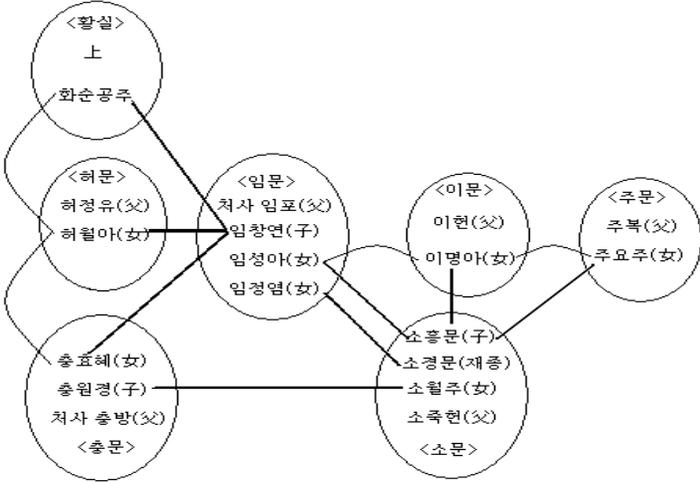
3. 多重結緣의 複合 構造가 지니는 형태미와 내적 원리

이제 多重結緣의 複合 構造의 형태적인 측면을 보자. 먼저 2중결연(겹사돈)과 3중결연(삼각혼)의 複合化의 경우, 무질서하게 얽혀 있는 듯하지만, 실상 질서 있는 形態美를 갖춘다. 전자는 임·소 2門 사이에, 후자는 임·충·소 3門 사이에 이루어진다. 즉 2중결연과 3중결연에 동원되는 가문의 수가 최대 5개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최소 가문인 3개 가문에 한정하여 2중결연과 3중결연이 중첩적, 복합적으로 설정된다.

또 이런 복합적 다중결연은 1부3처의 4중결연이 더해짐으로써 더 복잡하게 되지만, 그런 중에서도 형태미를 갖추는 쪽을 지향한다. 두 개의 4중결연을 설정함에 있어서 임·충·소 3門 중에서 2중결연(겹사돈)과 3중결연(삼각혼)을 동시에 이루는 두 가문(임문과 소문)을 선정하여 4중결연의 남편감을 설정함으로써 두 개의 4중결연이 무질서하게 펼쳐지는 것을 방지한다. 이렇듯 2중결연, 3중결연, 그리고 두 개의 4중결연이 혼잡하게 얽힌 듯하지만, 실상 그림에서 보듯 응집력 있는 형태미를 갖춘다.

위기. ㉠김성광, 채원중, 양귀비, 능운자의 공모 및 간당의 득세 및 파멸. ㉡김성광·채원중·양귀비·능운자의 공모. ㉢약류 징치.

다중결연의 복합구조



그리고 다중결연의 복합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시부모가 신부를 매우 흡족히 여기는 모습, 장인 장모가 신랑을 매우 흡족하게 여기는 모습, 하객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축복과 찬탄, 그리고 결연 당사자들의 좋은 인품 및 신랑신부의 和樂과 서로에 대한 이해·배려·인내·덕성이 어우러진다. 이런 모습은 다중결연을 맺는 남녀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임창연·화순공주의 혼례 과정이 권2에서 20면의 적지 않은 분량,¹³⁾ 소흥문·임명아의 혼인 과정은 권2말~권3초에

13) 다음은 화순공주가 拜見姑舅할 때 시부모 및 하객이 바라본 공주의 모습을 기술한 대목이다. “존당구과 밧비 눈을 들미 공췌 광염이 찬란하야 오치 녁녕하니 서이히 비컨디 일눈홍일이 부상의 걸녀시며 턱궁명월이 옥난의 빛이는 듯 미우 팔치는 성자긱미로 성던운빈은 턱디의 정기를 아사시니 추월갓툰 니마는 칠 비 어른기고 부용낭협은 고은 즈티 무르녹아 선원의 일반화신이 향기를 췌으며 췌파쌍성은 효성이 무광하고 옥설긱비 선연노라하야 진퇴네비 규구의 맛가자 춤치하며 즈유법도하니 봉익초요의 표연흔 신치 왕피 상테긱 반도롤 현하는 듯 월궁 소이 계던의 느리는 듯하니 빅티천광이 출어범뉴하야 가슴 가운데 빅일이 비최고 턱디를 적게 너기는 녁냥이 이시니 의의히 **녀등군지라** 놓고 조호미 농 종닌지로 상네 나모의 여름이 아니라”(권2)

결쳐 약 32면의 많은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상세하게 나오는데, 그 상세함에 상응하여 혼인을 둘러싼 인물들의 흡족, 축복, 찬탄, 화락, 이해·배려·인내·덕성 등이 강조된다.

또한 反動人物의 악행은 여성 주역군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친자매와 같은 우애를 형성하는 계기, 남편과 화목을 이루는 계기가 된다. 예컨대 충효혜가 김성광에 의해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 허월아를 만나 친분을 맺고, 마침내 화순공주를 포함한 세 여성은 화목을 이루게 되고, 마침내 1부3처가 화목을 이루게 된다. 이명이는 광부인과 장설영·장섭父子에 의해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 위기에 처한 주요주를 구해내어 생사를 함께하는 사이가 되고, 임성아를 포함하여 셋이 서로 친한 사이가 되고, 마침내 1부3처가 화목을 이루게 된다.

요컨대 이해·배려·인내·덕성은 多重結緣의 複合構造의 내적 원리로 자리 잡는다.

III. 多重結緣의 複合構造의 지향점

그럼 다중결연의 복합 구조의 지향점은 무엇일까?

1. ‘산림가문-권문세가-황실’의 家門連帶

<화정선행록>에 나오는 통혼은 ①산림가문끼리의 통혼, ②산림가문과 권문세가의 통혼, ③산림가문과 황실의 통혼, 그밖에 ④별열끼리의 통혼으로 대별된다.

①山林家門끼리의 통혼의 경우 삼각혼의 3중결연의 한 축인 임문과 충문의 통혼이 중심이 된다. 두 가문의 가부장이 모두 ‘처사’로 제시된다. 임문의 경우, 가부장 임포는 자는 군복이며 서호처사로 불렸다.¹⁴⁾ 그는

‘누대 청한(累代淸閑)’한 가문의 사람으로서 ‘세상번극(世上繁隙)을 사폐(辭廢)하고 피세(避世)한 들늬은이[野老]’의 삶을 영위하는 인물로 제시된다. 장남의 배우자를 찾을 때에도 “영낙(榮樂)을 우이 보안 지 오린 고로 가아(家兒)의 호구(好逑)를 산야(山野)의 한가흔 벗을 어더 정코져”하는 뜻을 보이고 태허선생 충방의 딸로 혼처를 정한다. 충문도 임문만큼이나 처사적 성향을 지닌다. 가부장 충방은 궁향벽지에 명망 있는 처사로서 상대방의 高名을 듣기만 했던 사이였지만 만나자마자 서로 뜻이 통하게 되고, 즉석에서 자식들의 혼인을 약속한다. 자식 세대인 임창연과 충효혜의 결연은 산림처사가문 사이의 연대성의 강화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밖에 임문과 통혼하는 단문도 그런 성향을 보인다. 단문의 가부장인 단화는 임포와 죽마고우로서 出仕를 뜬구름처럼 여기며 옥소동 좌면 운리촌에서 卜居하면서 임포의 세 아들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제시된다. 그 후 임포의 셋째 아들인 임성연과 단경요의 정혼, 임성연의 장원급제, 성연의 금문직사 제수, 임성연·단경요의 성혼 및 부부화락 등 일련의 과정에서 보듯, 두 가문 사이의 통혼관계를 통한 강한 유대관계가 맺어진다. 임포의 아내(진부인)는 처사인 진단(희이선생)의 딸이기도 하다.

임문, 충문, 단문, 진문은 가부장이 處士인 가문이며, 이들 가문은 임·충 2門을 중심으로 직·간접적인 통혼관계를 형성한다. 가부장들인 임포·충방·진단은 “宋代 隱士로 처사적인 삶을 살았던”¹⁴⁾ 인물들인데, 그들의 처사적 이미지가 작품세계로 수용되어 산림처사로 그려진다.

②山林家門과 權門勢家の 통혼에서 핵심적인 결연가문은 임문과 소문이다. 소문은 “승상(소경화)-진왕(소백달)-추밀(소죽헌)”에 이르는 직계에서 왕을 포함하여 3대째 고위 관료를 배출하고, 방계(소죽헌과 4촌)

14) 임포(967~1028)는 전당 사람으로 자는 君復이며, 西浩處士로 불렸으며, 諡號는 和靖先生이다. 평생을 불구자로 살면서 부귀와 공명을 추구하지 않고 서호의 고산에 은거하며 살았다(장효현, 112쪽; 김미선, 22쪽).

15) 김미선, 74쪽.

에서는 예부상서를 배출한 가문, 즉 ‘父母叔堂’이 ‘天寵’을 입은 권문세가이다.(4대째 재종형제들인 소흥문은 동창후에, 소경문은 도평후에 오른다.) 이에 더하여 ‘大儒’를 따르는 가문이기도 하다.¹⁶⁾

소흥문과 소경문 재종형제가 임문의 두 딸과 각기 결연하는, 임문과 소문 사이의 광의의 겹사돈의 2중결연, 더 넓게는 삼겹사돈의 2중결연을 보이고 있음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겹사돈, 삼겹사돈의 2중결연은 산림가문과 권문세가 사이의 강한 유대관계를 의미한다. 더하여 임문, 소문, 충문이 이루는 연쇄적 삼각혼 또한 산림가문과 권문세가의 연대를 한층 강화한다. 권문세가인 소문의 입장에서 보면 산림의 두 가문(임문과 충문)과 통혼관계를 맺는 꼴이 된다. 이 삼각혼의 3중결연에서 산림 두 가문(임문과 충문)과 권문세가 한 가문(소문) 사이의 유대관계를 보여준다.¹⁷⁾

③山林家門과 皇室의 통혼은 1부3처의 4중결연에서 한 축을 형성하는, 임창연·화순공주의 결연으로 형성된다. 임창연과 소흥문 두 명이 장원급제하는데, 황제는 산림가문의 임창연을 駙馬로 삼는다.¹⁸⁾ 그 과정에서 임포·임창연 부자가 충효혜와 정혼 사실을 들어 거듭 賜婚을 거절하지만, 황제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산림가문과 통혼관계를 맺으려는 황제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산림가문을 우대하는 황제의 태도는, 화순공주에게 媿父인 임포를 ‘山林君子’로 높이면서 행동거지

16) … 소독헌이니 즈는 즈문이라 승상 경화의 손이오 평단왕 빅달의 지니 승상 문헌의 외손라 도년 등양헌미 작위 병부 대스마의 니르고 … **입도 슈십지의 턴총이 날노 익익하니 부모숙당이 턴총의 농농호를 두리오미 여좌침상헌더라 … 하늘이 소문을 흥케 호고** 방실을 꿩주헌니 형부인이 구산의 괴도헌미 업시 … 싱즈헌니 … 당성헌미 온랑공검호고 검공호스헌미 **대유의 즈리롤 붙아** 성문의 입실홀지라(권1)

17) 이는 “당시의 님소통 삼문 꺾치 번성호화호미 더호 리 업스더”(권15)라는 서술로 집약된다.

18) 皇室이 權門勢家와의 紐帶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曾祖·祖·父·子 4대째 왕을 포함하여 고급관료를 배출한 권문세가인 소문을 신임했다. 다만 직접적인 通婚關係를 맺지는 않았다.

를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데서,¹⁹⁾ 임창연·충효혜의 정혼 사실을 알고 파혼 명령을 내렸다가 충효혜를 부실로 들이라는 아량을 베푸는 데서 잘 나타난다. 이에 앞서 황제는 처사인 임포·충반·단화를 태사·국사로 초빙하였던 바, 황제는 일찍이 산림가문과의 연대를 추진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황제의 賜婚과 그로 인한 충효혜의 婚事障碍는, 황실과 또 하나의 산림가문인 충문이 강한 유대관계를 낳는 계기가 된다. 황제에 의해 임창연의 정실 자리에서 밀려난 충효혜는 도술과 병법을 익혀 임창연을 구해내고 승전함으로써 황실의 유지에 큰 도움을 준다. 이에 황제는 충효혜를 양녀로 삼아 충문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양녀 충효혜를 임창연의 배필이 되게 한다. 이로써 임문·충문과 황실 즉 두 개의 산림가문이 황실과 강한 家門連帶를 형성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황실과 산림가문의 연대는 황제가 임문에 내린 賜宴에서 극치를 보여 준다. 임문에서 베풀어진 사연은 총 29면의 분량으로 장황하게 기술되어 있을 정도이다. 그 내용은, “임·소 양문에 황제의 사연 명령, 헌작 관원인 구경린과 장섭경의 獻酌, 임포에게 ‘화정선생 현의공’이라는 칭호 하사, 이튿날 임포의 황제에 대한 사은.”으로 정리된다.

④ 閥閥家門끼리의 通혼은 1부3처의 4중결연에서 한 축을 형성하는, 소흥문·이명아의 결연으로 이루어진다. 소문이 권문세가인 것은 앞에서 언급했거니와, 이문 역시 대대로 명문별열이었으며 가부장 이현은 형부시랑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런데 소문과 달리 이문은 가부장의 부재 및 계실의 악행으로 별열가문에서 벗어날 위기에 놓인다. 즉 재취로 들어온 곽부인이, 가부장 이현이 早死한 후, 친딸 이해아를 위한 시기심에서 전실 자식인 이명아의 혼사를 방해하고 이명아를 팔아넘기는 등 가중지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을 겪다가 소흥문·이

19) 황가의 교궁후를 나토지 말고 조심공근후야 속야 무위공스후고 너의 구과 산림의 늑후를 취후여 부귀를 헌 신 곳티 보는지라 뜻을 낫초와 군즈의 눈의 취줄을 뵈지 말나(권2)

명아의 결연이 이루어지는데, 이 결연을 통해, 별열에서 이탈하는 위기에 처한 이문이 권문세가인 소門과 통혼함으로써 家格을 회복하기에 이른다.

이상, ①山林家門끼리의 통혼, ②山林家門과 權門勢家の 통혼, ③山林家門과 皇室의 통혼, ④閥閥끼리의 통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런 통혼은 다중결연의 복합화를 통해 ‘산림가문-권문세가-황실’의 가문연대로 집중화된다.

2. 家門連帶의 총체적인 위기

한편 ‘산림가문-권문세가-황실’의 가문연대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 그 지점은 反動人物들, 즉 양귀비·김성광·채원중·능운자가 종적, 횡적으로 결합하는 지점이다.

양귀비는 황제의 총애를 받던 여성으로서 악행을 통해서라도 正宮을 차지하려는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여 황실갈등을 일으키는 중심인물이 된다. 양귀비와 관련된 황실 사건은, “㉠인목황후 꺾씨가 태자를 얻지 못하자, 신종이 양귀비에게 침닉함. ㉡꺾후가 양귀비를 투기하여 괴롭히다가 양귀비의 참소를 당해 폐위됨. ㉢소귀인이 황후로 봉해지자, 양귀비가 소후에게 妖邪誣告를 행함. ㉣소후·태자 모자와 화순공주의 간청으로 꺾후가 복위되고, 꺾후·소후가 화목하게 됨. ㉤화순공주가 정성으로 모친 꺾후가 회과하고 황제와 화목하게 됨. ㉥양귀비는 친딸 화선공주가 시가에서 득죄하여 죽자 이에 불만을 품음.”으로 정리된다.

양귀비와 김성광·채원중 무리가 합세하고 요도 능운자가 가세하면서 황실갈등은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양귀비는 화순공주·임창연·충효혜의 활약으로 양씨가문의 위세가 위축되고, 임창연에 의해 양씨가문이 ‘小人之門’으로 폄하된 것에 분노한다. 이에 능운자의 도움을 받아 도봉잠을 탄 음식을 먹여 황제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요예지물 사건을 일으켜 소후·태자 모자를 참소한다. 그녀와 결탁한 능운자

는 황제의 꿈에 선관으로 현몽하여 임창연과 소흥문을 참조하고 그 병권을 빼앗아 김성광과 假여원홍(眞채원중)에게 넘겨주라고 일러주는가 하면, 소흥문으로 둔갑하여 소흥문을 역적으로 몰기도 한다. 결국 이들 악류들과 양國舅 형제와 동류 奸黨이 합세하여,²⁰⁾ ‘충효혜-임창연-소흥문-포증-소백달-소죽헌’에게 帝位篡奪의 역모죄를 씌운다.

이로 인해 임·충·소 3門을 중심으로 맺어지는 겹사돈의 2중결연, 삼각혼의 3중결연, 그리고 황실과 다른 가문으로 확대되는 1부3처의 4중결연 등이 엮어내는 복합적 다중결연이 깨뜨려질 총체적 위기에 처한다. 이러한 복합적 다중결연의 와해 위기는 反動人物들끼리 서로 숨기거나 속이는 자중지란과²¹⁾ 主動人物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극복되기에 이른다. 예컨대 충효혜는 악류들의 행동거지를 흰하게 헤아리면서 시비 매홍에게 지시를 내려 惡類들의 도술과 병법을 물리치게 하고 결국 그들의 죄상을 밝혀내기에 이른다. 이에 능운자는 죽음을 당하고, 양귀비는 치죄를 당하는 중에 병사하고, 김성광과 채원중은 귀양가게 된다.²²⁾ 이로써 <화정선행록>은 ‘㉠複合的 多重結緣의 초기 국면, ㉡反動人物에 의한 複合的 多重結緣의 위기 국면, ㉢複合的 多重結緣의 위기 극복’을 거쳐 다중결연에 바탕을 둔 ‘산림가문-권문세가-황실’의 가문연대가 공

20) 양國舅 형제와 동류 奸黨이 합세하는 형국을 이루는 대목은 간단한 서술로 제시된다.

21) 김성광과 채원중의 경우를 보자. 김성광은 계섬을 이명아로 誤認하고 혼약할 때 자신의 정혼자가 이명아라는 점을 숨긴다. 이는 김성광이 이명아와 혼약하기 전에 채원중이 이명아를 취하려 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김성광은 이명아를 가로채는 것이 되어서 함구했던 것이다.

양귀비와 능운자의 경우를 보자. 요도 능운자는 처음에는 양귀비의 하수인으로 서 황실갈등과 국가적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 후 양귀비를 배반하여 양귀비를 없앤 후 양귀비로 둔갑하여 황제의 총애를 받으려고 한다.

22) 장효현과 김미선에 의해 밝혀졌듯이, 題名이 “화정선행록”으로 된 것은 처사적 인물인 임포(화정)의 활약,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며느리 충효혜(화정공주)의 다각적인 활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다중결연의 복합화가 성사되는데 있어서 충효혜의 예지가 크게 기여한다.

고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3. 家門連帶의 중심축으로서의 산림가문의 성향

산림가문과 권문세가, 황실 세 가문이 가문연대의 주요 가문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겠거니와, 이제 이 세 가문에서 ‘변화를 수반하며 우세한 (dominant) 기능을 하는 中心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중결연의 복합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通婚에서 중심가문인 임·충·소 3門 중에서 권문세가가 하나이고, 산림가문이 둘로 설정된 만큼 산림가문이 우세한 기능을 지닌다. 또한 황실, 권문세가, 산림가문 중에서 가문 유지와 발전의 측면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쪽은 황실과 권문세가인 소문인 반면, 가문의 대내외적인 변화를 보이는 쪽은 산림가문이다.

산림가문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들 구성원에게 보이는 處士的 性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호처사 임포는 은거하는 處士型 君子로서,²³⁾ 비록 거절했지만 황제에 의해 出仕를 권유받은 자였으며,²⁴⁾ 충방은 처사형 인물로서 황태사로 부름을 받고 그에 응한 인물이다. 또한 단화는 황제의 요청을 너덧 번이나 거절하다가, 처사 임포, 태사 충방 그

23) ... 선성의 늙은 절개 송독 꺾타여 종시 청현화직을 물니치고 고현처사로 물세
 함물 찬단하야 이에 그 스격을 일위닐시 서귀 또한 이 공주의 아롭다오미 황영
 의 지미 업소고로 서로 일크르 의논하고 전을 일위 슈계 화녕선형이라 호든 선
 성의 도학대절을 본호미니 후인이 엇지 좀 공명문달을 탐하야 화녕선성 현의고
 절청심을 효측지 아남 죽호리오 일노조츠 선성의 성덕이 희외의 진동호고 위왕
 창연이 효형통심이 텃하의 휘자호더니 츠츠 자녀의 괴이호 셜해 무슈호디 임의
 쇼설 별전의 잇는고로 초초히 기록하야 선성의 고의를 표호노라(권15)

24) 공의 슝되오미 개세군즈로디 뜻이 낙낙하여 철마 들네를 비척호고 산슈간의
 쇼유하야 공명을 헌신 갖치 너겨 심산벼처의 은거하야 운학을 쏘오고 미록을
 베타야 미산의 고스리를 키고 즈지가를 읍혀 평성을 보닐시 텃지 다숫 번 안거
 스마로 명호시디 응치 아니호고 곱히 은거호니(권1)

리고 부마 임창연 등의 권유를 받아들여 國師가 되고 겸하여 식록 1000여 석을 받은 인물이다. 이렇듯 임포·충방·단화는 대사 혹은 국사의 자리에 걸맞은 자들로서 ‘몰락양반’과는 구별되는 산림처사로 그려진다. 이들 가부장은 자신들의 山林處士의 삶의 방식을 자식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자식의 出仕를 권장하기조차 한다. 임포 본인은 宦路를 꺼렸지만, 세 아들에게 과거 응시 및 출사를 권장하고, 장자가 부마로 간선된 것을 天意로 받아들인다. 처사 진단은 딸을 임포에게 출가시켰지만, 아들이 출사하여 각로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상경하여 아들과 함께 거처한다. 충방은 세 아들의 출사를 반대하지 않았으며, 임창연을 사위로 정할 때, “준일(俊逸)은 풍되 님하(林下)의 미물티 아녀타일 황각(黃閣)의 근시(近侍)하미 이음양(理陰陽) 순스시(順四時)하야 덕망과 지예(才藝) 한상(漢相) 병길의 아리”가 아닐 것을 예견한다. 단화는 임포의 세 아들이 한나라 때 ‘순씨 팔룡’ 못지않게 똑똑함을 일컬으면서, 특히 셋째 아들(임성연)을 가리켜, “타일 도스(朝仕)의 나아가미 죽히 님시 청덕이 빗치 잇고 형의 고체지심(固滯之心)을 개(開)하야 이현 부모(以顯父母)”할 것을 예견하고, 그를 특별히 사랑하여 외동딸과의 정혼을 이끌어낸다.

부친의 處士指向의 삶의 방식과 자식들의 宦路指向의 삶의 방식이 대립·상충하여 부자갈등으로 확대될 만하지만 그렇지 않고 兩立한다.²⁵⁾ 여기에서 ‘隱居型 處士=沒落兩班’, “出仕型 上層人士=權門勢家”의 巨大談論의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가부장은 처사를 지향하지만 자신을 포함하여 자식이 출사·현달하는 길을 열어 놓는 이러한 산림가문을

25) 장효현은 부친(임포)의 ‘처사로서의 삶’과 ‘출장입상을 거듭하고 두 공주를 포함한 세 부인을 거느려 부귀영화를 극진히 누리는’ 아들(임창연)의 삶은 ‘다소 不調和한 모습으로 공존’한다고 했다(장효현, 113~121쪽). 김미선은 임포는 ‘처사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가문의 번영을 구가하는 가부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가문의 위상확립의 중요성’을 알려준다고 했다(김미선, 30쪽). 필자는 두 견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되, 임문이 벌열산림인 점을 고려하여, 父의 삶과 子의 삶은 자연스럽게 ‘兩立’한다고 본다.

‘별열’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²⁶⁾ 즉 산림가문서의 자공심을 지니면서 상층부로 진출하는 길이 열려 있는 가문을 闕闕山林이라 부를 수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임창연과 충효혜이다. 둘 다 부친의 산림처사적인 삶의 방식을 체득한 인물로서 훗날 임창연은 부마로서의 삶, 충효혜는 황제의 양녀(화정공주)로서의 삶을 향유하며, 그에 걸맞게 임문과 충문은 별열산림으로서의 면모를 확립하게 된다. 그런데 임창연은 고위 관료로서의 삶을 꺼리지 않는 반면, 충효혜는 황실의 풍요로운 삶에 안주하지 않고 담박한 처사적 삶을 지향한다. 즉 이들은 별열산림가문의 부부로 존재하면서, 남편은 闕闕指向的인 삶을 지향하고, 아내는 山林處士的 삶을 지향하는 상대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별열산림의 가문 내에서 상호보완성을 확보하되, 그 배후가 되고 있는 산림가문의 모습을 초점화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IV. 결론

<화정선행록>은 겹사돈의 2중결연, 삼각혼의 3중결연, 1부3처의 4중결연을 담고 있는데, 이들 다중결연은 차례대로 <창난호연록> <청백운> <임화정연>에서 확인되는 것들이다. <화정선행록>은 각 작품에 흩어져 있던 다중결연들을 한 곳에 모아 ‘多重結緣의 複合’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서사구조 내지는 결연구조 측면에서 참신성을 획득했다. 이런

26) 조선후기에 恩津宋氏 順年系(송시열, 송능상, 송환기, 송치규, 송달수), 坡坪尹氏 暉系(윤선거·윤순거·윤원거→윤중→윤추→윤동수·윤동원)는 ‘별열’의 범주에 드는 ‘산림가문’이다.(차장섭, 『조선후기별열연구』, 일조각, 1997, pp.192~195). 17세기 이래 조선사상계와 정계에서 義理主人으로 世道之任을 담당해 왔던 산림세력이 영조 이후에는 척족이 되기도 했으며, 이는 기존의 별열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유봉학, 『노론학계와 산림』,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8, 55쪽).

다중결연의 복합 구조는 질서 있는 형태미와 이해·배려·인내·덕성의 내적 원리를 지닌다.

다중결연의 복합 구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通婚은 山林家門끼리의 통혼, 산림가문과 권문세가의 통혼, 산림가문과 황실의 통혼, 그밖에 벌 열끼리의 통혼으로 나뉘는데, 이들 통혼들 직·간접적으로 얽히면서 ‘山林家門-權門勢家-皇室’의 家門連帶를 지향한다.²⁷⁾ 이런 가문연대가 반동인물들에 의해 와해될 위기에 처하는데, 양귀비·김성광·채원중·능운자가 결합하고 양國舅 형제와 동류 奸黨이 합세하는 지점이 그 극점이다. 이들 악류에 의해 ‘충효혜-임창연-소흥문-포증-소백달-소죽현’이 제위찬탈의 역모죄로 몰림으로써 ‘산림가문-권문세가-황실’의 가문연대가 總體的 위기에 처하지만 극복되기에 이른다. 이렇듯 ㉔복합적 다중결연의 초기 국면, ㉕반동인물에 의한 복합적 다중결연의 위기 국면, ㉖복합적 다중결연의 위기 극복’을 거쳐 다중결연에 바탕을 둔 ‘산림가문-권문세가-황실’의 가문연대가 공고해진다.

그리고 ‘산림가문-권문세가-황실’의 가문연대의 핵심축으로 山林家門이 자리잡는다.²⁸⁾ 이와 관련하여 산림가문은 산림가문으로서의 자긍심을 지니면서도 출사하여 상층부에 편입하는 ‘闊闊山林’의 성향을 지닌다. 이를

27) <임화정연>은 ‘處士型寒門-宦路型家門-權門勢家’의 가문연대를 보이고 그 중심축으로 宦路型家門이 설정되며, 權門勢家は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두루 지니다가 가문연대 과정을 거치면서 부정적인 면이 소거되기에 이른다. <화정선행록>에서는 가문연대의 중심축이 산림가문으로 되어 있으며, 그 산림가문이 처사적 성향을 띠지만, 寒門이 아니라 벌열산림의 성향을 띠며, 권문세가인 소문은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그려진다.

28) 2중결연구조, 3중결연구조, 4중결연구조가 각각 개별 작품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그 후에 이들 구조들이 ‘복합화’한 작품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多重結緣의 複合’ 構造는 19세기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장효현은, 『한국서지』, 가람본 『언문척목록』, 『조선어문학명저해제』에서 <화정선행록>이 언급된 점, 18세기 후반의 서울대본 <옥원제합기연>에 필사된 소설목록과 19세기 전반의 『제일기연』(홍희복) 서문에 <화정선행록>의 서목이 들어있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작품이 19세기에 들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했다(장효현, 94~95쪽).

단적으로 형상화한 인물이 임창연·충효혜 부부인데, 남편의 闕闕指向的인 삶과 아내의 山林處士의 삶이 상대적인 차이를 견지하면서 闕闕山林의 상호보완성을 확보한다.

주제어 : 多重結緣의 複合 構造, 形態美, 內的 原理, 家門連帶, 山林家門, 闕闕山林

참고문헌

-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연구사, 1983, 821~827쪽.
- 김미선, 『<화정선행록> 연구-결연양상과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20쪽, 22쪽, 30쪽, 73~74쪽.
- 박명희, 『고소설의 여성중심적 시각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0.
- 유봉학, 『노론학계와 산림』,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8, 55쪽.
-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15~18쪽.
- 장효현, 『<화정선행록>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26권 3호, 2003, 93~120쪽.
- 조광국, 『다중결연구조의 양상과 의미-<창란호연록><청백운><임화정연>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육학회, 2006, 504~505쪽, 509~511쪽, 524쪽.
- 차장섭, 『조선후기벌열연구』, 일조각, 1997, 192~195쪽.
- 한길연, 『대하소설의 능동적 보조인물 연구-<임화정연> <화정선행록> <현씨양옹쌍린기> 연작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7, 19~28쪽. 40~46쪽.

<Abstract>

The Structure as the Complex of Many-fold-marriage

Jo, Gwang-Guk

In *Whajungsunhaenglok* the structures of two fold marriage, three fold marriage and four fold marriage were composed remarkably. Each many-fold-marriage had lain in Korean old novels such as *Changnanhoyeonlok*, *Chungbaekun*, *Yimhwajeongyeon*. *Changnanhoyeonlok* has two fold marriage between two families, and *Chungbaekun* has three fold marriage that is triangle marriage between three families, and *Yimhwajeongyeon* has four fold marriage between four families, that is one husband-three wives. And In *Whajungsunhaenglok* appeared a new dimension of the narrative structure as the Complex of many-fold-marriage. This structure shows the formal beauty, and the internal principals such as comprehension, consideration, endurance, moral character.

The narrative structure as the Complex many-fold-marriage was aimed at families-coherence between the family of the retired gentleman, and the family of the high circles, and the family of an emperor. And the antagonists threatened families-coherence, however were destroyed at last. The family of a retired gentleman occupies the core of families-coherence. By the way the retired gentleman has a sense of self-respect and pride on the one hand, finds his way into the upper class on the other hand. The family of the retired gentleman has an inclination of the family of the high circles.

In short the narrative structure as the Complex many-fold-marriage was the narrative structure not only in korean novels but also in the world novels.

Key Words : structure as the Complex of many-fold-marriage, formal beauty, internal principals, families-coherence, family of a retired gentleman, family of the high circles